

저출산 시대 '경사'...광주 '세쌍둥이' 100일 잔치

북구 김민아·김재현씨 부부, 건강한 출산 위해 생업도 접어
“분유·기저귀값 3배 들지만 ‘행복 3배’” 지자체 등 선물 답지

30일 광주시 북구 문흥1동 한 아파트의 거실에는 3개의 똑같은 신생아 베개가 놓여 있었다.

베개의 주인은 김민아(여·37), 김재현(39)씨 부부가 100일 전 낳은 세쌍둥이인 하은·소을·효린이다. 이들 부부는 첫 자녀가 생겼지만, 세쌍둥이인 탓에 ‘육아 전투’ 중이다.

부부는 “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이 들겠지만 살아갈 날의 기쁨과 행복은 3배로 커진 듯 하다”고 환하게 웃어 보였다.

지방소멸의 위기에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힘들어졌지만, 이 아파트만은 달랐다. 세쌍둥이가 100일을 맞은 이날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김씨 부부의 아파트에는 세쌍둥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김씨 부부는 1년 전, 자그마치 3명의 생명이 한번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임신 8주차에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 애초 진단과 달리 한 명이 아니라 세명의 심장소리를 듣고 기뻐했지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자연 쌍둥이가 발생할 확률은 1% 남짓이고 이들 부부처럼 세쌍둥이가 생길 확률은 그보다 훨씬 낮다.

민아씨는 “두 명도 아닌 세 명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캘리그래피 작가인 민아씨는 임신과 동시에 학교 강사를 그만뒀다. 설치 미술 작업을 하던 재현

씨도 아내를 케어하기 위해 일을 접었다.

이들은 생계를 내려놓고 뱃속의 아이들만을 위해 전념했다. 민아씨는 입덧이 심해 음식도 잘 먹지 못했고 입덧이 끝나자 미주신경성실신 증상으로 졸곤 쓰러졌다. 화장실도 못감만큼 몸이 좋지 않아 대부분 시간을 누워서 지내야 했다.

그렇게 33주 6일차가 되던 때, 민아씨는 제왕절개로 세 아이를 맞이했다. 가장 먼저 세상밖으로 나온 하은이는 2.53kg였고 소을이는 2.3kg, 효린이는 2.06kg이었다.

수술후 회복한 민아씨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새근 새근 잠을 자듯 누워있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나듯 기뻐던 그때의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출산 이후에는 수유와 수면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아이가 하루에 사용하는 손수건은 30장 가량, 하지만 3명의 아이를 한번에 키우려면 하루 100장 가까운 손수건이 필요했다. 수유도 한 아이라면 6분만 해도 될 걸 하루 18번을 해야 했다. 목욕 역시 3명을 모두 씻기려다 보니 조리원 퇴원 이틀만에 봉합부위가 터져 병원을 다시 찾아야 했다.

다행히 시어머니가 안아주던 금세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을 자는 덕분에 김씨 부부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육아에 전념하느라 김씨 부부는 일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분유도, 기저귀도 3배로 드는 탓에 생활비는 늘어갔다.



광주시 올해 1분기 출생아 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30일 오후 광주시 북구 문흥 1동에서 김민아(가운데)·김재현(맨 오른쪽)부부의 세 쌍둥이가 100일을 맞이했다.

민아씨는 “지금은 국가에서 매달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해줘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이후 아이들이 초·중·고를 거치며 들어갈 교육비와 병원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들 부부는 출산 이후의 삶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

민아씨는 “새근새근 잠을 자거나, 환하게 웃을

때 정말 행복하다”며 “세명 모두 개성이 다르다. 사진 찍을 때, 우 입힐 때 등 일상의 순간마다 큰 기쁨을 준다”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쌍둥이가 100일을 맞은 이날 문인 광주북구청장과 문흥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김씨 부부를 찾아 현금 100만원, 100만원 상당의 선물과 산양분유 144캔을 후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년 동기 대비 출생아 감소율(올해 1분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3%를 기록했다. 출산 가능 연령대(15~49세)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혼인 건수도 줄어 들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메가 의대' 시대...전남대 163·조선대 150명 선발

전국 의대 1497명 증원 ...전남대·조선대 신입생 서울대보다 많아
의협·광주시의사회 “의료 사망선고” 문화전당앞 광장서 촛불집회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전국 의과대학들이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올해 선발정원 125명이었던 전남대와 조선대는 각각 163명, 150명을 뽑는다. 전북대는 171명, 원광대는 150명을 뽑는다.

〈관련기사 6면〉

이같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광주시의사회·전남도의사회 등은 30일 밤 전국 6개 권역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라는 이름으로 촛불집회를 열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전국 39개 대학의 올해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수도권 대학이 1326명(28.8%), 비수도권이 3284명(71.2%)이다. 정부의 정원 정책에 따라 2024학년도에 비해 1497명이 늘었다.

특히 광주에서는 ‘메가 의대’ 시대가 열리게 됐다. 전남대와 조선대가 의대 모집정원을 각각 163명, 150명으로 확정해 서울대(135명)를 넘어섰

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종전 125명 보다 각각 38명, 25명이 늘었다.

조선대는 정부에서 배정한 증원분 25명을 100% 반영했다. 전남대는 학칙 개정에서 정부에서 배정한 75명을 포함한 200명을 정원으로 했으나 내년에 한해 38명만 증원하기로 했다.

전형 유형별로 보면 전국 39개 의과대학은 수시 모집으로 3118명(67.6%), 정시모집으로 1492명(32.4%)을 뽑는다.

주요 전형요소별로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가장 많은 1577명(34.2%)을 뽑는다. 수능위주전형으로는 1492명(32.4%), 학생부종합전형으로 1334명(28.9%), 논술전형으로 178명(3.9%)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고교 교과성적(내신

성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성적과 함께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전형에 활용한다.

늘어난 모집인원(1497명) 가운데서는 절반에 가까운 42.6%(637명)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30.7%(459명), 수능 위주전형으로 22.1%(331명)을 뽑는다.

학생부교과전형이 늘어남에 따라 각 대학이 ‘수능 최저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비수도권 위주로 증원된 정원을 배분하고,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강조하면서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늘어난다.

각 대학은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정책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0일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전국 6곳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비판한다. 의협은 이날 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전주 전북도청 앞, 대전 보라매공원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라는 이름으로 촛불집회를 열었다. 30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는 광주시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 주최로 촛불집회가 열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라남도

완벽한 전남 여행을 위한 전남관광플랫폼

전남관광플랫폼으로 더욱 특별한 전남여행을 경험해보세요!

번거로운 버스 예약도

취향저격 숙박 예약도

현지인 추천 맛집 예약도

투어, 티켓 예약도

교통, 체험, 맛집, 체험까지 한방에 할인

지금 QR코드를 찍고 전남관광플랫폼 JN TOUR를 다운 받아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vailable on the
App Store